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현장을 누비고 계실 _____ 님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보건을 넘어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장에까지 충격을 주는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3.24일 전례 없이 과감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 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필수적 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전대미문의 위기에서는 그 위기보다도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비판, 그리고 소중한 정책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0월 위기설’, ‘발등의 불’, ‘00기업 자금난’ 등은 저희를 더욱 정신 차리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불안이 커지고 해당기업이 더욱 곤란해지는 부분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긴박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언론 등과 소통이 더 자주 있었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반성과 함께, 늦었지만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는데 적극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과 더욱 잘 소통하고 시장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4. 6.

금융위원장 은 성 수

